

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

# 축 사

2019. 4. 15. (월) 14:00  
은행회관 국제회의장(2층)

금융위원회 위원장  
최 종 구

## I. 인사말씀

---

안녕하십니까.

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
전 세계적으로 금융결제 부문에서  
혁신과 경쟁이 뜨겁습니다.

금융결제 혁신은 이제  
종합적인 금융플랫폼을 지향하면서  
금융산업 전반의 판을 바꾸는  
**“Game Changer”** 가 되고 있습니다.

그리고, **금융결제 혁신의 핵심 인프라**로서  
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,  
자금이체를 위한 결제망을 개방하는  
**“오픈뱅킹(Open Banking)”**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

이러한 가운데 오늘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 
오픈뱅킹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 
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.

세미나를 준비해주신 손상호 금융연구원장님,  
김학수 금융결제원장님을 비롯하여  
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한국은행, 금융결제원 담당자,  
업계, 학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## II. 오픈뱅킹 추진 배경

---

저는 지난 2월 25일

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」을 발표하면서,

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기 위해서는

개방적인 금융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며,

은행도 이를 상호 개방해야만

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

### ① 금융결제 부문의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가속화

무엇보다도 금융결제가 모바일, IT 기술과 결합하여

모든 금융거래의 접점이 되고,

광범위한 빅데이터를 창출하면서

**금융결제 중심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**되고 있습니다.

이미 다수의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

금융결제 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

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.

기술기반의 빅테크(Bigtech) 기업들 역시,

금융결제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여

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

금융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

## ② 주요 선진국은 금융결제 시스템 개방 등 과감한 대응중

주요 선진국들도 금융결제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 
결제시스템의 개방성·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 
**과감한 인프라 혁신**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이미 EU, 영국,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 
핀테크 기업이 은행 결제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 
법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.

## ③ 우리나라는 폐쇄적 금융결제 시스템으로 혁신에 한계

반면, **우리나라**의 경우,  
개별 은행 중심의 **폐쇄적인 시스템**으로 인해,  
핀테크 기업은 은행 도움 없이는 서비스가 불가능하고,  
은행의 경우에도 다른 은행 고객에 대해서는  
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

이 같은 폐쇄적 시스템을 계속 고집할 경우,  
글로벌 금융혁신 경쟁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.  
상거래 전반의 효율성은 물론,  
다양한 혁신산업의 성장도 어려울 것입니다.

금융결제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는 오픈뱅킹은  
이 같은 절박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### III. 오픈뱅킹 인프라 구축의 의의

---

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」 발표 이후,  
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문가 분들이 모여  
오픈뱅킹의 첫 단추인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 
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.

다시 한 번 은행과 금융결제원 실무 전문가 분들의  
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비록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 
오픈뱅킹의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,

여러분들의 노력으로  
은행과 결제사업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 
저렴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 
혁신적인 금융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.

- 1) 모든 은행과 결제사업자들이
  - 2)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
  - 3) 전 국민의 은행 계좌에 바로 접근하여
  - 4) 입금, 출금, 결제 등 모든 자금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
-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를**  
갖게 되는 것입니다.

❶ 첫째, 새로운 결제시스템은  
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**개방형 인프라**입니다.

핀테크 기업은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지 않고도  
공동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은행도 상호 개방된 시스템을 통해  
자기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고객에 대해서도  
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플랫폼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.

❷ 둘째, **공정하고 저렴한 비용**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과거 결제시스템은 비싼 이용 수수료 등으로  
이용에 매우 큰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

앞으로는 국제수준에 비추어서도  
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,  
은행과 핀테크 기업 모두  
서비스 개선과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❸ 셋째, **체계적이고 높은 보안성 · 안정성**을 갖추고 있습니다.

기존 시스템은 사업자별로 보안기준 등이 상이하고  
체계적인 점점 체계를 갖추기 어려웠으나,

앞으로는 보안전문기관(금융보안원)의  
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보안 심사를 비롯하여  
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 
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## Ⅳ. 성공적인 오픈뱅킹 구축을 위한 과제

---

이번에 마련되는 오픈뱅킹의 첫 단추가  
금융결제 부문에 대대적인 혁신을 가져오고  
나아가 금융산업 혁신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  
함께 노력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**① 첫째,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**하여  
연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오픈뱅킹은 단순히 핀테크 기업만을 위한  
시혜적인 인프라가 아니며,

모든 은행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 
전 세계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 
은행권의 핵심 인프라임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.

**② 둘째, 저비용,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,**  
이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과 은행 모두  
**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에**  
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.

소비자들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,  
상거래 수수료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 
혁신적인 서비스의 출현을 기대합니다.

③ 셋째, 모든 국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 
**시스템 안정이 중요한 만큼,**  
이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거래 확대에 따라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 
거래규모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 
서버 증설 등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.

④ 넷째, 결제인프라는 금융전반의 혈맥으로  
안정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
해킹,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하여  
참여기관의 **보안 수준과 점검 방식을 강화**하고  
**공동 결제시스템 전반의 보안성도 높여야** 할 것입니다.

핀테크 기업들도 보안문제는 단순 비용문제가 아닌,  
서비스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⑤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은  
현재의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 
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,  
참여기관, 이용범위, 이용료 등 모든 부분에 있어  
**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함**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

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 
필요한 경우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또한, 새로운 방식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 
유연한 운영도 당부 드립니다.

## V. 마무리 말씀

---

개별적인 금융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,  
금융 인프라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 
금융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의  
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습니다.

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 
**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**  
**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과** 같습니다.

금번 오픈뱅킹 구축으로  
**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**되었습니다.  
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세상을 뛰어 넘는  
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.

오늘 학계, 업계 등 여러 전문가 분들이 모인 만큼,  
오픈뱅킹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 
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도 오픈뱅킹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화는 물론,  
금융결제업 체계 개편, 빅데이터 활성화 등  
오픈뱅킹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 
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며,  
뜨거운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